

## ASEAN 비즈니스 투자 정상회의 기조연설

존경하는 루디 페식 ASEAN 민간자문위원회 위원장,

탄리 아벵 ASEAN 비즈니스 투자 정상회의 조직위원장,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아시아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아시아 기업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세계 경제가 어렵고 역내 기업간 협력이 중요한 시점에서 열리는 매우 뜻깊은 회의입니다. 이 회의가 역내 기업인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고 서로의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아시아는 물론 세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동남아 각국 지도자들은 일찍이 1960년대 중반에 ASEAN을 창설하고 결속을 다져 왔습니다. 1980년대 이후에는 무역과 투자 자유화 정책을 통해서 역동적인 성장을 지속해 왔습니다. 동남아 지역은 전 세계 개도국들에게 모범적인 경

제성장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실은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그리고 경제발전 단계의 차이를 극복하면서 성취해 낸 것이기에 더욱 값지다고 하겠 습니다.

이제 역내 경제통합을 꿈꾸는 ASEAN 회원국들은 단계적인 ASEAN 자유무 역지대(AFTA) 실현계획에 따라 작년 말 제1차 관세인하 목표를 달성하고, 2015년까지 역내 완전 무관세화를 목표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열리는 'ASEAN 비즈니스 투자 정상회의'가 그동안 ASEAN이 이룩해 온 성장과 통합의 결실을 민간부문으로 확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시아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한국과 ASEAN 국가는 세계사의 소용돌이를 함께 경험하면서 두터운 우의와 협력을 쌓아 왔습니다. 가까운 역사만 보더라도 2차 대전 이후 식민주의에 항거 하여 독립한 역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독립 후에도 반세기 가까이 지속된 냉전 체제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자존과 번영을 추구해야 하는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였습니다.

한국이 분단과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을 때 ASEAN의 많은 나라들은 물 심양면으로 우리를 도왔습니다. 국제무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는 아시아 경제위기의 풍파를 서로 도우면서 극복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ASEAN 친구들의 고귀한 우정을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ASEAN 여러 나라와 산업연수생 협력을 증진시켜 오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산업연수생의 절반 가까이가 ASEAN 국가 젊은이들입니다. 이들은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국과의 이해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 권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올해 7월 말 '외국인고용허가법'을 제정하였습 니다. 이제 외국인 근로자도 취업기간 동안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제도적으로 보

장받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제도 아래서 한·ASEAN 간 인적교류와 산업인력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희망합니다.

한국은 경제발전 경험을 ASEAN 국가들과 나누고, ASEAN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ASEAN 통합 이니셔티브' 등을 지원하는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정보화 경험과 성과를 ASEAN과 공유해 나갈 것입니다. ASEAN 역내 정보화 격차의 해소를 위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앞으로 연간 1천명 규모의 '개발협력단'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우선 500명 규모의 개발협력단을 ASEAN 국가를 중심으로 파견해서 ASEAN 젊은이들이 자국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새로운 21세기, 이제 한국과 ASEAN은 서로에게 너무도 중요한 교역과 투자의 파트너가 되고 있습니다. 한·ASEAN간 교역규모는 지난해 352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서로에게 제5위의 교역상대국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한국은 올해 상반기까지 ASEAN 지역에 96억 달러를 투자해서 ASEAN 전체 투자유입액의 약 5%를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한·ASEAN 관계는 상호보완성이 깊어지고 협력 분야도 넓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32만명의 한국 관광객이 ASEAN 국가들을 방문할 정도로 ASEAN은 우리 국민에게 매우 친근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결과에 만족해선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쌓아 온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ASEAN 관계를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저는 오늘과 내일 ASEAN 국가 지도자들과 만나 이러한 비전에 관해 논의하게 됩니다. 이를 토대로 ASEAN과의 중장기적인 협력방안을 하나씩 구체화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그동안 정치·외교 분야에서만 진행되어 오던 한·ASEAN간 협의 체널을 경제·통상 분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부터 한·ASEAN간 '경제장관회의'와 '고위경제관리회의'를 신설해서 정례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무역과 투자 활성화를 비롯한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둘째, ASEAN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동아시아 통합 움직임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일 개최되는 한·ASEAN 정상회의에서 한·ASEAN FTA 추진방안에 대한 저의 구상을 밝힐 계획입니다. 저는 현재 ASEAN이 AFTA를 통해서 경제적인 통합을 이루어가고 있고, 중국·일본·인도 등 인근 국가들과도 FTA를 비롯한 포괄적인 경제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도 동아시아 전체의 협력과 통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ASEAN과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서 1998년과 2000년에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과 '동아시아 연구그룹(EASG)'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두 그룹은 지난 수년 동안 ASEAN과 한·중·일 13개국의 참여와 협조 아래 성공적으로 연구를 진행시켜 왔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연구그룹은 동아시아 지역의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한 26개 협력조치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 이들 26개 협력조치 중에서 우선 '동아시아 포럼(EAF)'을 올 12월에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는 역내 회원국들의 산·관·학 대표들이 참석해서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진보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ASEAN의 통합에 기여하고 동아시아 전체의 결속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셋째, 현재 ASEAN과 한·중·일 재무장관회의 등을 통해서 추진 중인 역내 금융협력에도 적극 참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21세기 신 성장산업인 IT·

BT·NT 분야에서 ASEAN과의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아시아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지정학적 위치를 기반으로 이 지역의 협력 확대에 더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나라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한국을 개방된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과 기여를 통해서 동북아는 물론 동아시아 전체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한국 경제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며, 효율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기업회계와 지배구조, 금융과 노사관계 등 경제 전 분야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인천 국제공항과 부산항·광양항과 같은 물류 인프라를 확충해서 동아시아의 교류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들 인근지역에는 자유로운 비즈니스 활동이 가능한 경제자유지역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궁극적인 목표는 한국을 세계 어느 나라보다 투자하기에 좋은 나라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한국은 동북아만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협력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북아 지역에서 역할을 증대해 나가는 동시에 ASEAN 국가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동아시아 전체의 번영과 결속에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아시아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북한 핵문제를 두고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실 줄 압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대립은 동아시아 전체의 안정과 번영에 장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한 평화체제의 정착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북한 핵문제는 조속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8월 중국 베이징에서 6자 회담이 성사되었습니다.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길이 열린 것입니다. 가까운 장래에 제2차 회담이 열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우리는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아오는 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ASEAN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아시아 지역의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21세기는 도전과 기회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 시대와 냉전의 시기에 겪어야 했던 억압과 대결의 역사는 종언을 고했습니다. 동아시아는 북미·EU 지역과 더불어 세계 경제의 3대 축으로 부상했습니다. 이 지역만큼 발전 가능성과 협력의 여지가 큰 곳도 없습니다. 그러나 도전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경쟁구도 속에서 한국과 ASEAN이 함께 번영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역내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동아시아 지역에 개방과 협력의 질서를 진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미주·유럽 지역 등과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 실질적인 주역은 여기 계신 기업인 여러분입니다. 오늘의 만남을 계기로 한국과 ASEAN 각국의 경제계간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우리가 힘을 합쳐 노력해 나간다면 한국과 ASEAN 회원국, 나아가 동아시아는 세계 경제 성장의 견인차가 될 것이며 21세기는 동아시아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